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미국, 필라델피아, 설탕, 세금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미국, 필라델피아, 설탕, 세금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6.16
미국 필라델피아시
설탕세 법안 통과

2016. 11.
필라델피아 외 4개 도시
설탕세 법안 통과

2017. 1.
필라델피아시
설탕세 시행

2018. 하반기
미국 내 모든 식품,
영양성분표 내 첨가당
표시 의무화

핵심이슈
도출

“미국 필라델피아, 설탕세(가당음료세) 발효”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국 필라델피아, 설탕세(가당음료세) 발효

지난 2017년 1월, 당 음료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설탕세(가당음료세)가 미국 필라델피아시에서 발효되었다. 세금 부과 품목은 설탕, 포도당 등 당을 기반으로 한 감미료와 스테비아, 사카린 등 인공 과당이 함유된 음료이며, 해당 음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및 공급자가 음료의 용량(30ml, 1온스) 당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필라델피아 설탕세 법안이 통과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필라델피아 외 4개 도시에서 설탕세가 통과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설탕세의 도입이 확산되었다. 미국은 설탕세 외에도 첨가당 표기를 의무화하여 미국 내 설탕 섭취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개 도시 :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오كل랜드, 알바니와 콜로라도 주의 볼더

2016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당 음료 섭취를 감소시키고 비만, 당뇨병, 충치와 같은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외에도 걸프 연합국가, 영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설탕세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설탕세가 가당 음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계각층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세금을 피하고자 자발적으로 가당 음료의 생산량을 줄이거나 소비를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향후 무가당과 같은 건강 음료에 대한 수요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미국 내에서 설탕 섭취를 감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7년 1월 필라델피아시에서 설탕세가 실행됨에 따라 그간 설탕세 도입에 실패한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는 데에 힘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음료 업체의 경우 바이어 발굴 시 업체 소재지와 납품 지역을 고려해야 하며, 설탕세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도시 내 소재한 바이어에게 접근할 시 저당 및 무가당 음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길 추천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